

남원 2세 아이, 부모와 함께 따뜻한 나눔 실천

남원시는 지난 달 28일, 관내 김태령(2)양이 부모와 함께 따뜻한 나눔 실천으로 50만원을 남원시에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아이의 부모는 지난해부터 아동의 생일을 기념해 기부를 시작했으며, 올해도 아이의 성장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아이가 나중에 기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지금의 작은 나눔이 의미 있게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 노일환 행정복지국장은 “어린 나이에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라며, “기부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기성·금품 기탁을 희망하는 분들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620-633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동, 행정전화 안내문 제작·배포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행정 업무에 궁금증이 생겼을 경우 언제든지 편리하게 필요한 행정기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행정전화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내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방장고에 안내문을 부착, 행정기관 연락처를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안내문에는 남원시 금동행정복지센터 △민원 △산업 △복지 △건강 상담 창구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이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올해 금동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1일가구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자치사랑방 “희화낙樂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풍년칼국수와 행복한 밥상 마련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풍년칼국수(대표 형노준, 시청동로)와 지난 2월 27일, 관내 1동4동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30명에게 따뜻한 한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풍년칼국수는 2024년부터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도동동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나눔 활동 전개 및 상호 협력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나눔은 도동동의 1일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하여 발굴된 관내 소외계층에게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월 하루 지원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자체평가 실시

고창소방서는 오는 12일까지 2025년 상반기 소전술훈련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1종목씩 진행되며,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대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화재진압대원은 ‘인조조명’을 적용한 화재 진압을 평가받으며, 구조대원은 ‘수평구조’를 수행해 구조요구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능력을 검증받는다. 또한, 구급대원은 현장 심폐소생술(CPR)과 팀워크 평가를 통해 응급환자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소외된 아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이경림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대표, 제1회 SIA상 창의상 수상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이경림 대표가 최근 세움을 대표해 ‘제1회 소셜임팩트 어워드(SIA)’ 시상식에서 ‘창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소외된 아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비추은 세움의 지난 여정을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다. SIA(Social Impact Award)상은 임정희 현 (사)밝은청소년 이사장이 시민일보사장 재직 시 시민이 뽑는 상으로 구상 제안하여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준비위원으로 함께 5년간 준비하고 명망 있는 분들로 위원회가 조직되어 전문가 심사와 시민들의 투표를 거쳐 올해 첫 시상식을 하게 된 뜻깊은 상이다. 이 상은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기관과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정평이 났다. 특히 창의상은 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문제를 발굴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이 대표가 이끄는 세움은 보호자 부재,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지원하며,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 수상 소감에서 이경림 대표는 세움과 함께 성장해 온 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 영원활력센터 준공... 주민 공동체 형성 거점 기대

정읍시 영원면 주민자치센터인 영원활력센터가 지난달 28일 준공식을 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학수 시장, 윤준범 국회의원, 고경윤 시의원, 권동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위원장, 김규삼 영원면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영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추진 경과보고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사업 관계자 감사패 수여, 환영사·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권동임 주민위원장은 “영원활력센터 준공을 위해 힘써준 정읍시와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곳이 주민 공동체 형성의 중심이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한 주민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영원활력센터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주민 복지와 소통을 위한 거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



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원활력센터는 부지면적 5737㎡, 연면적 582.45㎡의 지상 1층 규모로 당당, 급식실, 강의실, 사무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2025년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회의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100세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 추진실적을 보고하며 2025년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한 해 동안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된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일자리 확대, 프로그램 운영이 주요 성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들이 고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또한 2025년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 실행계획도 심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보행로 등 기타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



원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고령자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사법연수원 26기 연세대 동문, 정읍시에 장학금 기탁

사법연수원 26기 연세대학교 동문회(윤정수 변호사 외 15명)가 지난 1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동문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정읍 출신 윤정수 변호사의 추천으로 진행됐다. 동문회는 1일부터 2일까지 정읍 시티투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육성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윤정수 변호사는 “단순한 친목 행사를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기획했다”며 “이번 장학금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문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이사장은 “귀중한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사법연수원 26기 연세대 동문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덕과면, 3·1절 기념식·만세운동 재현 진행

남원시 덕과면에서는 제106주년 3·1절을 맞이하여 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덕과면 사물리 동해골 3·1절 기념탑 광장에서 덕과면 발전협의회(회장 이종대) 주관으로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1부 기념식은 한준준 남원시 광복회장 독립선언문 낭독과 최경식 남원시장 기념사와 박희승 국회의원 추념사, 3·1절 노래에 이어 이종대 발전협의회장의 만세 3창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 참석한 최경식 남원시장은 “소중한 생명을 바쳐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3·1절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기억하겠다”라며, 뜻깊은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관계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2025년 유공납세자 6명에 표창장 수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4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 재정 안정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6명(개인 4명, 법인 2개소)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성실납세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공납세자 선발조건은 최근 5년간 매년 3건 이상 납기내 납부한 자 중 체납액이 없고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은 2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2020년 이후 김제시 성실·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법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김제시티투어버스 무료 이용, 김제시탐상품점 지급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 혜택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의 재정 자립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모든 분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더 나은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귀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군, 농민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 농민회(회장 최연수)가 4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무주군 농민회 임원진들과 무주군을 찾은 최연수 회장은 “지역은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고 농업환경 또한 기후 위기가, 고령화가 해서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자라는 꿈나무들에게서 희망을 본다”라며 “오늘 전달하는 장학금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업을 뒷받침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농민회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민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장학금 기탁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천동농협,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구천동농협은 지난달 27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구천동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복잡해지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예방 동영상 시청과 보이스 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배우며 가족사칭 금전 요구 시 먼저 본인 확인한 것과 출처불명 파일·문자·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고 피해금 환급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구천동농협 김성곤 조합장은 “날로 발전하고 지속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조합원 및 농업인을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안성면 황경주씨,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 안성면 주민 황경주 씨가 4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황경주 씨는 “무주군 아이들이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높여나가는 데 장학금이 쓰이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따르면 황경주 씨는 2023년부터 매년 100만 원씩을 장학금으로 내놓으며 지역 인재 육성에 뜻을 보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